

현행 수록재의 몇 가지 문제*

이성운**

• 목 차 •

- I. 서언: 말글을 열며
- II. 현행 수록재 사례
- III. 몇 가지 문제
- IV. 결어: 대동의 향연으로



* 2012년 10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제50차 포교종책연구회에서 발표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임.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강사.

한글요약

이 글은 현재 한국불교에서 행해지는 수륙재에 대한 구조와 한국불교 수용자들의 인식 등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한 논문이다. 수륙재는 상중하단의 불(佛)과 신중(神衆)과 하위의 영가(靈駕)의 10법계의 성현(聖賢)을 초청하여 공양을 올리고, 음식을 베푸는, 가장 광대한 공양의례로써, 관행(觀行)으로 행해지는 종합적인 수행의례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행해진 수륙재에 활용되었다고 보이는 지반문(志磐文), 중례문(中禮文), 결수문(結手文) 등과 현재 행해지는 수륙재를 비교하면 몇 가지 상이(相異)한 점이 나타난다.

현재 행해지는 수륙재와 이전의 의문과의 차이점이 검토되고, 그것이 향후 수륙재에 반영되면 바람직한 수륙재의 전형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진행을 위해 먼저 한국불교에서 행해지는 수륙재의 사례를 중심으로 수륙재의 명칭, 구조와 의미, 대중의 참여와 이해 등을 집중 검토하고 다음 몇 가지를 논증하고 있다.

첫째, 수륙재에 대한 의미의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종래 ‘수륙재’ 하면 물과 물에서 죽은 이들을 천도하기 위한 의례라 하여 물가에서 행하곤 하였지만 그렇지 않다.

둘째, 수륙재의 초입에서 행하는 모셔오는 ‘시련’의식의 대상이 그동안은 불보살이나 성현중이라고 한 데 비해 이 논문에서는 시련의 대상은 당해 영가이다. 또 각 단계 따라 공양물을 질과 양적으로 변화하게 하는 변공(變供)의식의 차이가 있으며, 상단 중단 하단을 청하여 공양과 시식하는 수륙재에는 상황에 따라 상 중 하단의 청이 끝나고 나서 공양을 올리거나 아니면 상 중 하단을 청함과 동시에 공양을 올리는 방식이 채택되고 있는데, 수륙재의 실행 구조를 비교 분석하여 바람직한 차서가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현 정치체제상 ‘국행’ 수륙재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국행과 별도로 현실에 맞는 불교의례로 수륙재가 행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 수륙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 아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한글로 번역되어야 한다.

주제어 수륙재, 시련의식, 시련의식, 시식, 공양, 변공(變供)

I. 서언 : 말글을 열며

가우타마 싯다르타의 깨달음은, 다른 이들에게 전해져 이해되고 공감하게 되면서 불교가 세상에 탄생하게 되었다. 이 과정은 전도, 전법, 포교라고 불린다. 다시 말해 ‘포교’는 불교의 산모라고 할 수 있다. 포교를 통해 세상에 나타났고 자신의 몸집을 불려온 결과 가우타마 싯다르타 붓다의 가르침은 수천 년 이후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언급될 모든 것들은 결국 포교의 산물이며 포교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포교 없이 붓다의 가르침이 전승되고 전파될 수 없었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이 같은 광의의 의미에서 볼 때 불교의 모든 일(佛事)은 포교가 아닌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불교에서 수록재는 일상적인 의례라고 하기보다는 특수한 수요가 일어났을 때 행해지는 전문 의례라고 할 수 있다.¹⁾ 다시 말해 수록재는 송주, 예경, 공양, 시식 등의 일상의식과는 달리 전문적인 작법이 행해지는 의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행해지지 않는 특수한 의식인 수록재가 포교에 활용되려면 어떤 문제가 개선되어야 할까.

그동안 수록재는 역사적 설행과²⁾ 그 내외의 구조와 관련 지물 등

-
- 1) 한국불교의 의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국불교에서 행해지는 의례를 모은 의례집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의례를 무엇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논점이 있겠지만 의례집의 편찬자를 중심으로 이해할 때 1998년 대한불교조계종에서 발행한 『통일법요집』을 들 수 있다. 이 의례집에는 수록재라는 명칭이 보이지 않지만 수록재와 유사한 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영산작법 시왕각배 대례왕공 등을 전문의식에 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전문의식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한상길, 「조선전기 수록재 설행의 사회적 의미」, 『韓國禪學』第23號 (한국선학회, 2009, p.672, 주1)와 고상현, 「고려시대 수록재 연구」, 『선문화』제

을 중심으로³⁾ 주로 언급되고 연구되었다. 수록재의 연원은 중국 양의 무제에 두고 있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신빙성은 적다고 할 수 있으며, 수록재의 사상적 기반은 염구시식경전에 의거한다고 할 수 있다.⁴⁾ 그간 여러 논문이나 의례 단행본⁵⁾ 등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으므로 수록재의 사전적 의미나 사적(史的) 실행은 논하지 않을 것이다.

이 논문은 수록재가 현대 포교에 활용되려면 어떤 문제들이 해소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논의를 위해 한국불교의 수록재 실행 현황 사례를 먼저 살펴보고(II장), 현행 수록재를 이전 한국에서 실행되었다고 보이는 ‘志磐文’, ‘中禮文’, ‘結手文’⁶⁾ 등 고 의

10집 (2011, p.4, 주4) 등에는 尹武炳, 「國行水陸齋에 대하여」, 『白性郁博士頌壽紀念論叢』(1959)과 연제영, 「수록재 실행 형태 고찰」 등 10여 편이 보고되었고, 또 심효섭, 「한국수록재의 역사적 전개와 진승 현황」, 『삼화사와 국행수록대제』 (삼화사·동해시·(사)국제아시아민속학회, 이하 삼화사로만 명기함, 2008), pp.109-117; 이규대, 「선초 삼화사 국행수록재의 지역사적 의미」, 『삼화사와 국행수록대제』 (삼화사, 2008), pp.109-117; 이장렬, 「조선 전기 국행수록재의 실행 논란과 사회사회문화적 역할」, 『진관사 국행수록대제의 조명』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2010), pp.33-58. 등 적지 않은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다.

- 3) 윤소희, 「한·중수록법회연구」, 『韓國音樂研究』 제43집 (한국음악협회, 2008), pp.193-215; 김재수(성마), 「수록재 구성에서의 범패작법」, 『삼화사와 국행수록대제』 (삼화사, 2008), pp.277-310; 장경희, 「조선시대 국행수록재의儀式法具」, 『진관사 국행수록대제의 조명』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2010), pp.111-145.
- 4) 不空 譯, 『佛說救拔焰口餓鬼陀羅尼經』 T21; 『佛說救面然餓鬼陀羅尼神咒經』 T21; 이성운, 『한국불교의례체계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35.
- 5) 수록재 의문으로는 수록무차평등재의촬요(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와 범계성범수록승회수재의례(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천지명양수록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등의 ‘설회인유편’에 실려 있다. 수록재문의 번역 현황을 보면,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임중욱 역주, 동해시, 2007)와 『진관사 국행수록대제』 (진관사, 2011,10)에서는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를 번역하고 있고, 『삼밀시식행법해설』 (범안·우천, 정우서적, 2011)에는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의 번역과 결수와 관상법이 함께 해설되어 있다.
- 6) 『志磐文』,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第一輯 (三聖庵), pp.575-620. 이하 『한

문과 어떤 점이 비교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구조와 의미’, ‘참여와 이해’라는 입장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III장) 이 같은 기반 위에 설 때 수륙재는 비로소 대동의 향연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임을 논증하였다.

II. 현행 수륙재 사례

10세기 중엽 고려 광종대에 국내에서 처음 수륙재가 설행되었으며,⁷⁾ 1천여 회 이상 재 도량이 설행된 고려시대에⁸⁾ 재라는 이름의 기록은 30여회 보이지만 수륙회라는 이름으로 설행된 기록은 1회에 불과하다.⁹⁾ 1395년 조선 건국으로 말미암아 희생된 전대 왕조의 추천을 위해 개성의 관음굴, 거제의 견암사, 삼척의 삼화사에서 거행된 수륙재 기사를¹⁰⁾ 시작으로 조선 실록은, 국행수륙재가 폐지되는 16세기 초인 1511년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수륙재 관련 기사를 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조선시대 불교의례에서 수륙재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웅변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수륙재 설행 기사가 빈번해진다고 해서 고려시대에 수륙재가 자주 설행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표면적인 기록은 잘 보이지 않지만 재 도량 무차대회와 같은 명칭으로, 수륙재의 의미를 안은 재(齋) 의례의 설행은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의충』이라 칭함; 『中禮文』, 『한의총』2, pp.217-250; 『結手文』, 『한의총』2, pp.623-643.

7) 『고려사』 권93 (열전 제6), 최승로전.

8) 서윤길은 『고려사』의 기록을 중심으로 고려일대를 통하여 설행된 범회·도량을 1038회로 정리하고 있다. 『한국밀교사상사』 (운주사, 2006), p.508.

9) 정대혁, 『한국불교용통사』 (정우서적, 2002), p.255.

10) 『태조실록』 (태조 4년 2월 24일)

생성과 소멸이 완고하다고 할 수 있는 의례의 속성상 조선시대에 와서 부지불식간 수륙재 실행이 증가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선의 건국 과정에서 태조는 원치 않는 피의 숙청을 보게 되어, 신불 군주 태조의 성향을¹¹⁾ 만족할 수 있는 의례로, 상중하단의 일체의 성인과 범부에게 차별 없이 공양 참회 시식 추천 등이 종합적으로 배풀어지는 수륙재가 새롭게 인식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조 국행으로 거행되던 수륙재가 중후기로 내려오면서 수륙재는 개인 또는 사찰중심의 민간차원에서 대중화되어 실행되게 된다.¹²⁾ 이후 민간차원에서 주로 실행되던 수륙재가 현금 한국불교에서는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 현황과 사례를 의문(儀文) 중심으로 살펴보자.

1. 실행현황

한국불교의 수륙재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최근의 자료로는 2010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에서 시행한 『수륙재현황조사보고서』와¹³⁾ 1969~71년간에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실에서 민속자료조사 차원에서 실시한 『불교의식』의 수륙재 항목이 있는데, 이곳의 수륙무차평등재의의 설명에 불과하므로 실행현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없다.¹⁴⁾

11) 『태조실록』(태조 3년 4월 17일) 관대하고 자비로운 성품을 지닌 태조는 자신의 뜻과 달리 고려왕족을 멸족시킨 데 대한 아픔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상길, 앞의 논문, p.676.

12) 심효섭, 「한국수륙재의 역사적 전개와 진승 현황」, 『삼화사와 국행수륙대제』(삼화사, 2008); 이기운, 「조선 후기 수륙재의 실행과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의 편찬의도」, 『진관사 국행수륙대제의 조명』(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2010), pp.90-93.

13)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문화부, 『수륙재실행조사보고서』(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2010) 이 보고서 표지제목과 판권의 제목이 약간 다르게 표기되었다.

14) 『佛敎儀式』(文化財研究所 藝能民俗研究室), 1989

『수륙재현황조사보고서』는 2009년 7월 1일 통도사에서 실시된 대한 불교조계종 본말사 주지연수에서 수륙재 실행, 시기, 기간, 목적 등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에 응한 413개 사찰 가운데 111개 사찰(27%)에서 수륙재를 실행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고 있다. 이 조사에 응한 빈약한 수치와 그 결과로 한국불교의 수륙재를 온전하게 살피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¹⁵⁾

- 실행시기: 대체로 3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윤달에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1월, 3월, 5월, 10월 등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실행하는 경우와 필요한 날을 잡아 실행하는 경우도 있다.

- 실행장소: 대체로 사찰 내에서 하는 경우와 바닷가 등 물가에서 실행하는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난다.

실행기간: 1일과 3일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때로는 7일, 21일, 49일간 실행하는 예도 보인다.

- 실행목적: 무주고혼 천도를 위해 실행하고 있다. 때로는 불사회향에 맞추어 실행하거나 사찰 창건과 관련하여 실행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조선 후기 국행수륙재가 폐지되며 수륙재가 사찰 내에서 일반적인 천도재의 모습으로 변화한 현상이며, 또 수륙재를 사찰 특별기금 마련을 위해 실행하는 경우이다. 의례가 본래목적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포괄적인 목적으로 실행되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수륙재의 본래 목적이 사성과 육범, 죽은 자와 산 자, 남과 여, 신분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차별 없이 무차평등하게 소통하는 의례로 인식하기보다는 무주고혼 추천 기능에 국한되는 모습을 읽을 수 있다. 특히 물가에서 수륙재를 실행하는 모습에서 물과

15) 『수륙재실태조사보고서』, pp.25-33.

물을 떠도는 고힌, 또는 물과 물에서 죽은 고힌을 위한 추천의례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실행사례

『수륙재현황조사보고서』에는 여수 진남제 수륙재, 법성포 단오 수륙재, 진관사 수륙재, 월정사 수륙재, 삼화사 수륙재를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진남제 수륙재와 법성포 수륙재는 짧은 시간에 실행되고 있고, 삼화사 수륙재는 3일에 걸쳐 실행되고 있으며, 진관사 수륙재는 칠칠재로 실행되고 있다. 해서 현행 수륙재를 세 실행기간 유형으로 나눠 의식차서만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1) 1일제 수륙재¹⁶⁾

여수 진남제 수륙재는 2시간 30분 정도 다음과 같은 차서로 실행되었다.

① 신중작법; ② 도량엄정¹⁷⁾ 대비주 사방찬 도량찬 참회계 참회진언 정삼업진언 개단진언 정법계진언; ③ 신중의식 거불(3지장) 진령계 소청(3천선신)주 소청진언 유치청사 향화청 가영 헌좌진언 정법계진언 상단다계 진언권공(4다라니) 운심공양진언 진언가지 보공양진언 보회향진언 원성취진언 보궐진언 축원; ④ 하단의식 거불(나무상주시 방불법승) 처좌계 시식계 시궐식진언 시무차법식진언 보회향진언 찬반계 반야계 여래십호 법화계 무상계 정도업; ⑤ 봉송의식.

법성포 단오 수륙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음의 차서로 실행되었다.

16) 『수륙재현황조사보고서』 pp.38-54.

17) 『수륙재현황조사보고서』에는 상단의식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는 도량을 엄정하고 결계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시련의식 옹호계 현좌진언 다계 행보계 산화락 나무대성인로왕 보살 영취계 보례삼보; ② 대령의식 거불 대령소 지옥계 파지옥진언 멸악취진언 보소청진언 유치청사 향화청 다계 고훈청 향연청 고훈가영; ③ 관육의식 거불 청혼 인예향육편~보례삼보; ④ 폐불이운의식 옹호계 찬불계 출산계 염화계 산화락 나무영산회상불보살 등상계 사무량계 영산지심 현좌계 다계 건회소; ⑤ 영산의식¹⁸⁾ 할향 연향계 연등계 삼정례 개계소 합장계 고훈계 설회인유편 정삼업진언 계도도장진언 삼매야계진언 엄정팔방편 개계편 반문계 관음청 청사 향화청 산화락 공양 가영 결수계 쇄수계 결청계 사망찬 엄정계 참회계 개단진언 건단진언 결계진언 발보리심편 발보리심진언 주향통서편 분향진언 주향공양편; ⑥ 사자단의식; ⑦ 오로단의식; ⑧ 상단의식 『수록재촬요』의 상단 3위 소청과 공양 축원; ⑨ 중단의식 『수록재촬요』의 중단 6 소청과 공양 축원;¹⁹⁾ ⑩ 하단의식²⁰⁾ 거불 소청하위소 진령계 파지옥진언 멸악취진언 소청아귀진언 소아귀진언 구소청악취중진언 보소청진언 유치 고훈도청 향연청 가영 인예향육편 정로진언 입실계 가지조육편 ~ 출육참성편 지단진언 행보계 산화락 나무대성인로왕보살 정중계 개문계 가지예성편 보례계 오자계 범성계 수위안좌편 안좌진언 다계 [가지변공편 변식진언 출생공양진언 현향진언 현등진언 현화진언 현과진언 현수진언 현병진언 현식진언 윤심공양진언]²¹⁾ 선

18) 『수록재현황조사보고서』에는 ‘운수상단의식’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나 상주권공의식과 수록재촬요의 엄정결계의식이 혼재돼 있는데, ‘운수’와 ‘상주’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19) 상단과 중단의식을 수록재촬요에 의지하고 있는듯하나 상위와 중위에도 관육과 부육편을 시설한 것으로 볼 때 志磐文과 中禮文을 참조하고 있다고 보인다.

20) 하단 소청 이후 관육을 마치고 상단과 중단 공양을 올리고 하단 시식을 하는 모습을 하단의식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도 2일제 수록제를 봉행하는 진관사의 의식도 이와 같은 것으로 볼 때 실제 이렇게 봉행되었다고 보인다.

21) 가지변공은 상단 현공의식인데 하단의식에서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

양성호편 설시인연편 12인연진언 선밀가지편 멸정업진언 해원결진언
 주식현공편 변식진언 시감로수진언 일자수륜관진언 유헤진언 고희수
 향편 시식계 시귀식진언 시무차법식진언 보공양진언 참제업장편 참
 회계 참회진언 발사홍서원편 원성취진언 사사귀정편 귀의삼보진언
 왕생정토주 석상호지편 지계진언 수행육도편 관행계찬편 원만회향소
 회향계찬편; ⑪ 봉송의식 삼단도배송편²²⁾ 보계계 행보계 산화락 나무
 영산회상불보살 법성계 화재수용편 화재계 소전진언 봉송육도편 봉
 송진언 상품상생진언 보신회향편 보회향진언 파산계 삼회향 회향계.

현재 유통되고 수록재문으로는 『석문의법』 소개 의문이 있지만 진
 남포 수록재는 신중권공과 하단시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이고, 법성
 포 단오 수록재는 현행 시련 대령 관육이라는 틀에 영산의식과 수록
 재철요 의식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3일제 수록재

3일에 걸쳐 진행되는 삼화사 수록재의 모습은 삼화사 소장 『천지명
 양수록재의찬요』²³⁾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와 같이 선행
 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 『수록재현황조사보고서』에 보고된 ①
 시련의식~ ⑫봉송회향의식의 차서는²⁴⁾ 이해하기 어려운 분과라고 보

22) 삼단도배송편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 배송은 삼단도배송이 아니라 하단
 배송이라고 보인다.

23) 이 찬요는 ‘中禮文’이라는 보편적으로 약칭되는 이름으로 삼화사에 소장
 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천지명양수록재의찬요』(임종욱 역주, 동해시,
 2007)에서 영인본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의 간기는 “萬曆三十五
 年丁未三月”(169쪽)에서 확인되는데, 무슨 연유인지 “萬曆 二十六년 丁
 未”라고 기술하고 1547년이라 간기를 규정하고 있다. 1547년은 嘉靖 26
 년이다. 이후 몇 편의 논문에는 이 간기를 그대로 옮겨 적고 있다. 한상
 길은 1547년(명종 2)라고 하고 있고(앞의 논문, p.684.); 이규대, 앞의 논
 문, p.115; 미등, 『국행수록대재-삼화사 수록재를 중심으로』, (조계종출판
 사, 2010), 이하 『삼화사 국행수록재』라 약칭함, p.29.

24) 『수록재현황조사보고서』, pp.56-65.

이므로 『국행수록대재-삼화사 수록재를 중심으로』에 등재된 설행차서를 살펴보고자 한다.²⁵⁾

첫째날 - 준비의식: 시련의식 대령의식 괘불이운의식

둘째날 - 본의식: 채수결계의식 설법의식 사자단의식 오로단의식 상단의식

셋째날 - 본의식과 회향의식: 중단의식 방생의식 하단의식 봉송회향의식

3) 49일 칠칠재 수록재

진관사 수록재는 법화신앙에 기반한 칠칠재 형식으로 설행되며, 입재에서 육재까지는 영가·고훈천도와 법화경 독송이 명부전을 중심으로 설행되며 마지막 칠재에서는 낮재인 영산재와 밤재인 수록재로 합설되었던 수록재의 전통에 따라 대웅전 중정을 중심으로 도량 안팎에서 성대하게 다음과 같이 설행되고 있다.²⁶⁾

낮재: 一. 시련; 二. 대령²⁷⁾; 三. 관육²⁸⁾; 四. 신중작법; 五. 괘불이운; 六. 영산작법; 七. 법문²⁹⁾.

25) 미등, 앞의 책, pp.51-256. 그림과 사진을 곁들인 설명과 의문이 제시되어 있다. 세부적인 계송과 진언 등은 이미 앞의 1일제 수록재의 순서에서 적시하였으므로 이하는 대분류의 분과만 제시한다.

26) 『조선시대 수록재의 전통을 계승한 진관사 국행수록대재』,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진관사수록재보존회, 2011), 이하 『진관사 국행수록재』로만 명기함, pp.39-131.

27) 『진관사 국행수록재』에는 국훈청 승훈청 고훈청의 삼청이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고, 여타의 대령의식과 달리 지옥영가청은 행하지 않으므로 천수주나 파지옥진언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재후시식 전시식 등에서 행해지므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인다.

28) 『영산재』, (심상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p.166에서의 ‘괘전계’ ‘안좌계’와 같은 중복성이 보이지 않는다. 체진을 걸든 위패를 안치하던 하나로 통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체진은 걸고 위패는 놓는다면 영산재의 두 계송 시설은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호모순을 면하기 어렵다.

밤재: 一. 수록연기 설회인유편 엄정팔방편 발보리심편 주향통서편 주향공양편; 二. 사자단 소청사자편 안위공양편 (마구단권공); 三. 오로단 개벽오방편 안위공양편; 四. 상단소청 소청상위편 현좌안위편 보례삼보편; 五. 중단소청 소청중위편 천선예성편 현좌안위편; 六. 하단소청³⁰⁾; 七. 상단권공; 八. 중단권공; 九. 하단시식; 十. 봉송회향.³¹⁾

진관사에 소장된 전승 수록재 의문은 1571년 전라도 강진지 월출산 무위사 개관본인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이다. ‘結手文’으로 불리는 이 의문은 약칭처럼 결수법이 있다.³²⁾ 낮재에서는 국혼 승혼 고훈이 칭해지지만 밤재의 하단에서는 일체의 지옥 영가를 칭해 관육을 하고 있다. 이는 양계와 명계의 존재에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낮재와 밤재로 실행되는 진관사 수록재는 칭하는 대상이 명료하게 분류되어 있고 옛 의문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III. 몇 가지 문제

수록재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명칭에서 답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길일 것이다. ‘물가와 육지에서 외로이 헤매는 영혼들과 배

29) 범문의식은 범화경 독송과 설법이 함께 시설되었다고 보이는데 ‘정대계’를 앞의 영산작법에 배치하고 있는데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0) 증명 인로왕보살을 비롯하여 25류의 천선과 고훈중과 귀중을 소청하여 관육을 하는데 관육소의 3단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 밤재를 10과목으로 분과하는 것은 좋지만 분과의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곳이 많은데 이는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32) 원고 작성 시점이 진관사 수록재 실행 중이라 확인을 할 수는 없었지만 전화 문의 결과 주지 스님이 배워 금번 수록재에서는 행한다고 전해 들었다.

고품에 시달리는 아귀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의식'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수륙재 이해에 문제는 없을까.

수륙재의 갖춘 이름을 떠나 수륙재의 수륙은 물과 물인데 이때 물과 물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을까. 수륙재의 '수륙'이라는 명칭의 근원에 대해, 송준식(遵式, 964-1032)의 『施食正名』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받아들이며, '諸仙은 물에 이르러 먹고, 귀신은 물에 이르러 먹는다는 데서 취한다'는 『金園集』卷四를 거론하고 있다.³³⁾

논자는 수식(受食), 치식(致食)의 설명에 시식행법의 의미를 보태야 '수륙'이라는 명칭의 등장배경이 명료해진다고 생각한다.

시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음식을 취해 깨끗한 그릇에 놓고 다라니주를 음식에 송주해 7편을 마치고, 문안에 서서 문밖으로 팔을 펴서 깨끗한 땅에 그릇을 놓고 일곱 번 손가락을 튕긴다. 이렇게 4방으로 백천구지 나유타 향하사 수의 배고픈 귀신에게 베풀며, 아귀 하나하나 앞에 마가다국의 녀 섬 아홉 말의 음식이 생겨서 아귀들이 두루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중략)

바라문과 선신에게 음식을 베풀고자 하는 자는 음식을 취해 발우 안에 가득 놓고 다라니주를 음식에 송주해 일곱 번을 마치고, 흐르는 물에 쏟으며, 무량한 향하사수의 바라문과 제신들에게 받들어 올림을 구족하게 되고, 하늘 음식과 같아져서, 바라문과 제신(諸仙)들이 이 음식을 마시며 제근이 원만하고 길상하게 구족해져서 각각 보시한 사람들을 찬탄하므로 음식을 베푸는 사람들의 마음이 청정해지고 속히 범천의 위덕이 얻어지며 항상 정행을 행하여 백천구지 향하사 여래에게 공양한 공덕을 구족하게 된다.³⁴⁾

『金園集』의 '공양물을 취하는 장소'의 비유나 '사성과 육범이 의지

33) 中國佛教協會編, 「中國佛教儀軌制度」, 『中國佛教』2 (上海: 知識出版社, 1982(1989)), p.383.

34) 實叉難陀(651~710) 譯, 『佛說救面然餓鬼陀羅尼神咒經』 T21, 466,b.

처가 되는 수륙공'의 수륙을 의미한다거나 “십법계 네 성인은 청정하기 때문에 물에 비유되고 여섯 범부는 평범하기 때문에 더러우므로 물에 비유한다.”³⁵⁾고 하는 설명들이 있지만 수륙재 의문이 붙여지는 여러 명칭을 분석해 보면 결론을 얻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석문의법』(1935)에 실린 수륙재의 의문 명칭은 ‘結手文’으로 알려진 ‘수륙무차평등재의’이고, 삼화사 소장본은 ‘中禮文’으로 불리는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이며, 현재 대만 불광사에서 실행되고 있는 『수륙의례회본』과 전체 구조가 다르지 않는 ‘志磐文’으로 불리는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례’ 등이 있다.³⁶⁾ 명칭을 살펴보면 ‘수륙재의’를 중심으로 하여 ‘천지명양’이나 ‘법계성범’이라는 접두어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천지의 명양이나 법계의 성범이라고 분석하며 앞은 주처이고 뒤는 양태라고 할 수 있다. 또 수륙의 뒷부분인 무차평등은 소청과 시식의 차이 없음을 의미하고, 찬요니 활요니 하는 것은 요점을 찬집했거나 뽑았다는 의미이므로 대소의 차이에 불과하다.³⁷⁾ 그러므로 수륙재에서 수륙은 재 도량의 장소가 아니라 재를 베푸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아귀는 지옥중생이므로 물에다 뿌리고 바라문선은 하늘에 있는 존재들로 인식하므로 흐르는 물에 흘러 물이 하늘로 올라가 바라문과 천선에게 공양되기를 바라며 베푸는 재라고 할 수

35) “十法界中，諸佛菩薩聲聞緣覺，此四聖，聖故淨也，喻之以水；天道人道修羅傍生餓鬼地獄，此六凡，凡苦染也，喻之以陸也。”『蓮潭大師林下錄』(한국불교전서 제10책, 동국대학교출판부, 1989), 水陸法語齋後, pp.273,하-274, 상.

36) 『수륙재현황조사보고서』, pp.89-106에는 수륙재문에 대해 7종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수륙재문은 志磐文, 中禮文, 結手文의 삼종으로 압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7) 『한의총』 편집 기준 『志磐文』은 p.45, 『中禮文』은 p.34, 『結手文』은 p.21이다. 활요에 결수법을 가하고 結手文이라고 한 연유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지만 지나치게 축소되는 것을 우려하여 결수작법을 추가했다는 생각이 든다. 수륙재문 찬집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다.

있을 것이다.³⁸⁾

또 영산법어를 ‘재전법어’로, 수륙법어를 ‘재후법어’라고 하는 명명이나³⁹⁾ ‘~재’에서 행해지는 ‘공양’과 ‘시식’이라는 이름으로 볼 때 ‘재’는, ‘부처님께 공양하고 스님께 재를 올리는 供佛齋僧’으로서 대중공양의 식당작법, 飯僧의 의미로서 ‘齋僧’, 또 우란분경의 ‘오백승재’에서의 ‘재(齋)’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수륙재뿐만 아니라 영산재를 제외한 거의 재에서 재승, 또는 승재가 행해지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⁴⁰⁾

II장에서 현행 수륙재 실행 상황과 의문의 인식을 중심으로 수륙재를 포교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승 수륙재문과 현행 수륙재 의식과의 차이는 무엇이며, 구조와 의미는 적합한지 등에 대해 검토해 보고, 둘째 수륙재를 포교에 활용하고자 할 때 어떤 점을 개선 또는 보완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구조와 의미

수륙재 실행 연기로 말해지는, 양 무제가 실행했다는 금산사 법회의 사실 여부를 떠나 수륙재가 실행된 배경은 배고픈 중생의 구제였다고 할 수 있다.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수많은 원망을 낳고 희생자와 굶주린 사람을 양산하게 마련이다. 선조 국행수륙재의 시작

38) 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면 물가에서 수륙재를 실행하는 것을 무지의 소치라고만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물가에서 음식을 뿌리는 것을 단순히 물고기들에게 밥을 주는 것으로 (효령대군이 한강에서 수륙재를 열고 행함, 『세종실록』 14년 2월 14일) 이해하거나 방생을 (삼화사 수륙재에서 행해진다고 보임) 위해 물가에서 행했다는 주장은 이후의 모습이라고 하겠다.

39) 『蓮潭大師林下錄』 (한국불교전서 제10책, 동국대학교출판부, 1989), 水陸法語齋後, pp.272, 하-274, 중.

40)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므로 본고에서는 깊이 다루지 못하였다.

을 알리는 관음굴 견암사 삼화사의 수륙재가 왕씨를 위해서였다는 사실이나⁴¹⁾ 행인에게까지 음식을 대접하는 사회구제였음이나⁴²⁾ 기신재를 수륙재로 개설하라는 기사나⁴³⁾ 영산법어를 재전에 행하고 수륙법어는 재후에 행하는 기록⁴⁴⁾이나 각종 재앙을 물리치는 기양의례라는 사실은 수륙재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수륙재는 산 자나 간 자들을 재 도량에 청해 음식과 법을 베풀어 구원하고 추천하는 종교적 구원뿐만 아니라 보시를 통해 사회적 자비를 실천하는 장치⁴⁵⁾이자, 삼단으로 보시바라밀을 실천하고 작관하는⁴⁶⁾ 수행의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륙재는 종교의례의 보편적인 형태인, 청하는 의식의 소청, 본의식인 공양(무외시 재시 법시)하는 의식, 그리고 부른 자들을 본래 자리로 보내는 의식의 3단 구조를 띄고 있다. 이 삼단계로 크게 대별하고 다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 하위 의식으로 촘촘하게 시설된 구조가 수륙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관점에서 수륙재의 내부구조 몇 가지에 대해 이해와 인식이 적합한지를 논해 보자.

1) 시련의 대상

시련에 대해 “수륙법회를 증명할 불보살님을 비롯하여 수륙도량을 호위할 신중을 모셔오는 의식”⁴⁷⁾이나 “시방의 제현성을 위시한 대법

41) 『태조실록』 4년 2월 24일.

42) 『세종실록』 14년 2월 14일. 효령대군이 한강에서 수륙재를 베풀고 승려뿐만 아니라 일체 행인에게까지 무차 시식을 한 기사는 이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43) 『세종실록』 2년 9월 22일.

44) 『蓮潭大師林下錄』 (한국불교전서 제10책, 동국대학교출판부, 1989), 水陸法語齋後, pp.272, 하-274, 중.

45) 이성운, 「한국불교 ‘시식의문’의 성립과 특성」, (불교학보 57집, 2010), p.183.

46) 『增修禪教施食儀文』 (韓儀叢 第一輯), p.363.

천왕 제석천왕 그리고 가람을 수호하는 팔부의 신중 등 일체 호법성중”⁴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보인다. 후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이는 그 이유로 성중 가운데 제일 먼저 참석해야 하는 대중이 곧 호법성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행수록대제-삼화사 수록재를 중심으로』에는 아래의 시련도를 보여주고 있다.⁴⁹⁾

[일산]	[비로자나불]	[龕]	[사령기]	[인로왕기]
[약사여래불]		[단]		[보승여래불]
[부동성취여래불]				[아미타여래불]
[등]				[등]
[영기]		[작법승]		[영기]
[청도기]				[청도기]
[순시기]				[순시기]
[참석대중]				

<도> 시련단 진설도

<도> 시련단 진설도에는 연을 중심으로 5방불이 도열하여 호위하고 있는데 시련의 목적을 ‘수록법회를 증명할 불보살님을 비롯하여 호위할 신중을 모셔오는 의식⁵⁰⁾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설명

47) 미등, 앞의 책, p.52.
 48) 『영산재』, p.138. 이 책은 별도의 편찬자가 나타나지 않지만 ‘심상현’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인의 『불교의식각론』Ⅱ (한국불교출판부, 2000), p.33에 같은 언급을 하고 있다.
 49) 미등, 앞의 책, p.54. 이 시련단에는 일반적으로 배치법인 청 황 등 축 등이 구별되지 않고 있다.
 50) 미등, 앞의 책, p.52.

은 설명과 시련도에 의지하면 5방제(帝, 神)도 아니고 오방불보다 더 상위의 佛格이 있다고 해야 한다. 아니면 시련이 임금님 영가인 선가를 모셔오는 의식인가.

상하가 엄격한 유교사회 조선시대에, 상위적인 불보살들이 그 하위적인 호법성증을 연에 모시고 도량 안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한가. 시련의 대상이 제현성이나 불보살님이라면, 괘불이운으로 모시는 불보살님과 성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시련의 대상을 시주자의 옷으로 대변되는 시주자의 발원의 대상인 즉 영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⁵¹⁾고 하면서 국행수륙대제가 왕실을 비롯한 특정 영가천도의 관련된 칠칠재형식의 수륙재로 설행되었으므로 당해 영가로 이해하고 있다. 또 사원 입구에 시련 장소를 마련하고 대중 일동이 영가를 환영하면 인로왕보살이 영가를 접인하여 부처님이 계시는 청정도량으로 맞아들이는 의식이라⁵²⁾거나 ‘수륙재는 시련이라 해 가지고 국왕부터 위패를 모셔오고 그러지요. 영산재는 시련이 없고 괘불이운만 해야 한다’⁵³⁾고 하거나 “선왕과 선후의 위판을 가마에 태워 도량으로 인도하는”⁵⁴⁾ 의식이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의 대상을 제성중이나 불보살이라고 이해하고 있을까. 법당에 모셔진 불상이나 괘불이운으로 신앙의 대상인 부처님을 모시고 탕화에 제성과 신증을 모시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 연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는 시련의 옹호계송에 봉청만 드러나 있지 옹호를 발원하지 않고 있다. 불교의식은 대개 현교와 밀교로 진행된다. 현교의 계송이

51) 『진관사 국행수륙대제』, p.32.

52) 『불교의식』, p.230; 『불교의례와 음식』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 2007), p.37.

53) 김용환·윤소희, 『신라의 소리 영남범패』 (정우서적, 2010), pp.135-136.

54) 장경희, 「조선시대 국행수륙재의 儀式法具 연구-왕실 의례용 공예품과의 비교를 통하여」, 『진관사 수륙대제의 조명』 (진관사, 2010), p.122.

나 표백에서 그 공능을 확인할 수 있다. 진언 같은 경우는 제목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시련의 옹호계승에는 봉청의 대상으로 하여금 무엇을 해 달라는 청원은 없고 청하기만 하고, 시련을 옹호해 달라는 발원이 숨어 있다 보니, 시련의 옹호가 아닌, 시련의 대상으로 둔갑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잘 알다시피 연은 임금이 타는 가마이다. 임금이외에 다른 이들이 탈 수 있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다. 성중을 공경한다는 의미로 성중이나 호법선신이 타는 가마를 연이라고 하여 예우를 갖춘다는 견해는 천부당만부당하다. 왜인가. 옹호성중은 옹호가 목적이지만 연에 타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왕조시대 임금이 연을 경호원에 해당하는 호법선신이 탄다고 하는 것은 망발이다.

둘째는 『오종범음집』 같은 의식에 보이는 상중하단 시련의식에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상단은 유나가 중단은 찰중이 하단은 기사가 라는 <상중하삼단시련위의도>의 곡해에서 연유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에서 말하는 상중하 삼단은 불단의 상중하단으로 읽으면 곤란하고 중앙의 금련을 상단, 도량 쪽에서 볼 때 좌우를 찰중과 기사가 시립한 모습을 삼단으로 지칭되고 있을 뿐이다.⁵⁵⁾ 다시 말하면 이 ‘시련위의도’는 반차도의 일종이다. 반차도의 행렬에서는 대신과 당상들이 이끌고 중앙에 腰輿를 두고 그 뒤를 궁원시관이나 제관들이 따르며, 향을 모신 향정자의 좌우에는 의장의물이 1쌍씩 마주한 다음 사령과 서리 등 하급관리들이 뒤따르는 모습⁵⁶⁾이라고 한다면, <시련위의도>에서는 불가 스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해도 오랫동안 불보살님이나 여러 호법성중을 모셔오고 있다고 믿는 영산재 또는 수륙재 실행 주체들은 수용하기 어렵다

55) 智禪 編, 『五種梵音集』(韓國佛敎儀禮資料叢書 第2輯), p.188상; 『진관사국행수륙대재』, p.32.

56) 장경희, 앞의 논문, p.131.

는 것을 안다. 이제는 의문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시련을 불보살님이나 성중을 모시는 의식이라는 주장의 의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범음집』 <晝侍輦作法>의 협주를 보자.

“옹호계를 하고 천수를 하고 사방찬 삼보단을 향할 때 엄정계를 하며 돌아선다. 다음 바라를 올리고 대회소를 읽고 다음은 평상처럼 바라를 올리고 다음 거불 뒤에 나무영산교주석가모니불 나무증청묘법다보여래 나무극락도사아미타불을 하고 나무문수보현보살 나무관음세지보살을 운운하고 바라를 올리고 삼보소로 칭한다. 다음 세 번 바라를 올리고 크게 부처를 칭한 다음 지심의 삼정례를 한다.” 이어서 “원강도량 수차공양: 도량에 내리셔서 공양을 받으소서.” 다음 산화락 삼동발 향화칭 가영으로 이어지고 있다.⁵⁷⁾

위 협주로 볼 때 주시련은 영산의 상단 청이다.⁵⁸⁾ 시련은 『석문의법』 대령 ‘부’에 실려 있고, 의문으로 활용되고 있는 ‘옹호계’에서 시작해 ‘삼보례계’로⁵⁹⁾ 끝나는 의문과는 다르다.

이와 같은 의문이 제시된 시련이라면 불보살이나 성중을 시련으로 모신다고 해도 수긍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어불성설이다. 현재 제시된 시련의식의 끝은 보례삼보인데 보례삼보는 시련으로 모셔 온 仙駕(위패)가 도량 안의 삼보님께 예를 올리도록 하는 의문이다. 이 보례로 말미암아 조선시대 유생들로 하여금 사찰에서의 수륙제 철폐 주장의 빌미가 제공되었다. 이후 수륙제가 폐지되게 된다.

57) “擁護偈 後 千手 四方讚 向三寶壇 時 嚴淨偈 擊之 回立 次 鳴鈸 讀大會疏 次 動鈸如常 次 舉佛 後 南無靈山教主釋迦牟尼佛南無證聽妙法 南無極樂導師 云云 南無文殊普賢 南無觀音勢至 云云 次 鳴鈸 請三寶疏 次 三動鈸 後 大請佛 次 靈山至心” 『필사본 범음집』 (공주 원효사 해월스님 소장본, 1923년 필사본), pp.72-73.

58) 智還編,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卷上 (한희총3), pp.19,상-20,상.

59) 『석문의법』하권, pp.54-55.

예조가 아뢰었다. “기신재에는 선왕, 선후의 位版을 가지고 뜰아래에서 부처에게 절하고 중에게 공양한 뒤에야 제사하며, 부처를 벌여 놓은 앞에 御諱를 쓰는데 이 세 가지 일을 다 폐지하소서.”⁶⁰⁾
 바야흐로 부처를 공양할 때는 先王과 先후의 神主를 먼저 욕실에 보내어 목욕을 시킨 뒤에 뜰에 꿇어 앉아 절하게 하니 생사가 다름이 없거늘 어찌 임금에게 이런 굴욕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⁶¹⁾

시련하여 도량 안으로 들어온 영가에게 보례하는 것으로 시련이 끝나는데 만약 불보살님이나 호법성중이라면 능례와 소례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능례자를 대중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보는데 모신 삼보께 예를 올리는 수록재에서의 의식은 현좌 이후 찬례삼보가 이에 해당된다.

2) 변공의식

국내에서 18세기 이후에 『志磐文』 『中禮文』 『結手文』과 같은 단독의 수록재문이 간행된 경우가 흔치 않다. 이 삼종의 수록의문으로는 삼주야 또는 일주야로 행해지는 수록재문으로 기능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후기로 오면서 중복되는 의례를 빼고 빠진 부분을 보충하는 刪補의 경향이⁶²⁾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찬요 활요 산보 등의 과정에서 시식의 핵심의식의 하나인 변공의식에 대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국내 수록재문에는 ‘가지변공’과 ‘주식현공’으로 위격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다. 『志磐文』과 『結手文』과 『中禮文』의 가지변공의식에 활용되는 진언이 다르다.

60) 『중종실록』 3년 5월 18일.

61) 『중종실록』 10년 1월 23일.

62) 이기운, 앞의 논문, p.99.

<표> 수록재의 상·하단용 가지변공과 주식현공 진언⁶³⁾

상단용 가지변공 진언			하단용 주식현공 진언		
『志磐文』	『中禮文』	『結手文』	『志磐文』	『中禮文』	『結手文』
변식진언 감로수진언 소향진언	대위덕진언 감로수진언 수륜관진언 유해진언	정법계진언 변식진언 출생공양 진언	변식진언 감로수진언 일자수륜관 진언 유해다라니 각 7편	대위덕진언 감로수진언 수륜관진언 유해진언 각 7편	변식진언 시감로수진언 수륜관진언 유해진언

하지만 현재에는 어느 수록재에도 구별하지 않고 있다. 『結手文』을 소장본으로 가지고 있는 진관사 수록재에서도 공양 이전의 가지변공이나 주식현공은 상·하단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논자는 대표적인 하단용 진언인 유해진언이 그 이름 때문에 상·하단에 구별되지 않고 쓰이고 있다고 생각한다.⁶⁴⁾ 『結手文』이 소장되었다는 진관사 수록재에서도 구별되지 않으며 가지변공의식은 하단의식에 몰아넣고 있다. 가령 상단의 오공양, 보공양진언 앞에 시설되어야 할 가지변공의식이 하단의 절차에서 옮겨오지 않고 있다. 실제 그러했는지 의문책자에서만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를 일이다.⁶⁵⁾ 이 같은 현상은 앞의 법성포 단오 수록재 하단시식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63) 『志磐文』(한의총1), pp.575-620.); 『中禮文』(한의총2, pp.217-250.); 『結手文』(한의총2, pp.623-643.)
 64) 이성운, 「한국불교 공양의식 일고-변공의식의 형성과 수용」, 『한국불교학』 제57집 (한국불교학회, 2010)에서 각 의례에 나타나는 변공의식을 각 위형과 통합형으로 분류하였다. 유해진언은 ‘보시일체아귀인진언’이므로 상단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수륙의궤회본』 상단공양에도 쓰이지 않고 있다.
 65) 『진관사 국행수륙대재』, p.197. 상단의식문에는 전혀 가지변공이 보이지 않고 보공양진언 이후 pp.205-6의 하단의식에는 하단 사다라니와 출생공양진언뿐만 아니라 6법의 현공진언까지도 하단에 배치해 놓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과거에는 “忙迫則 運心偈 云云”하라고 하였지만 지금은 운심공양진언을 사다라니 이후에 그대로 병설하고 있다.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보공양진언, 원성취진언, 보결진언의 공능과 의미를 살펴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⁶⁶⁾

3) 선후차서

선후차서는 앞과 뒤에 할 일의 순서를 의미한다. 수록재는 당일 행해지는 의식이 아닌 관계로 모신 성인이나 사자단 오로단 등의 공양에 공양의식이 행해지고 있는데 전승되고 있는 『志磐文』 『中禮文』 『結手文』에는 일정하지 않다.

『中禮文』과 『結手文』에서는 사자단이나 오로단의 경우에는 오신공양이 행해지고 있지만 상위소청과 중위소청하여 헌좌를 하고 나면 다당을 먼저 올린다.⁶⁷⁾ 그리고 하위를 다 청해 안좌 이후에 상위와 중위의 가지변공과 공양이 진행된다. 그렇지만 『志磐文』에서는 상위를 소청하여 헌좌와 찬례삼보를 하고 가지변공을 하고 헌공을 한다.

또 관육은 『志磐文』과 『中禮文』에서 행해지지만 『結手文』에서는 생략되고 있다. 현행 대령 관육 시식의 구조로 진행되는 대개의 재의식에서 하위의 영가들에게만 관육을 하게 되어 관육은 하단의 전유물로 이해되게 되었다고 보인다.

수록재의 핵심은 시식이라고 할 수 있고, 시식은 布施食의 줄임이다. 그러므로 수록재에서는 무외시 재시 법시의 삼종의 보시가 배풀

66) 이성운, 『표준범요집과 의례구조』, 『불교와사회』5집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포교연구실, 2009), pp.263-264.; 이성운, 『한국불교의례체계연구』(2012), pp.142-143에서 다뤘었다.

67) ‘奉茶湯’이라는 협주만 보이지만 이를 의식화한 것이 ‘다게’라고 할 수 있다. 結手文 등에는 봉다당에 해당하는 별도 계송이 시설되어 있지 않다. 이후 다게를 공양계송으로 이해하여 다게가 공양계송 역할을 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다게’는 바로 공양을 올리지 못할 때 우선 차한 잔 올리고 다른 중위나 하위의 소청 의식을 행하기 위해 행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지고 있다. 무외시로 시설된 의례가 선양성호편으로 오여래 칠여래의 명호와 진언이 칭명되고 있고, 법시로는 영산재에서는 법화경 독송으로 행해지지만 수록재에서는 십이인연편 관행(觀行)계찬 등이 시설되고 있다. 현재 일반 시식에서는 여래 십호를 비롯하여 반야계송 법화계송 열반경 무상계송이 법시로 설해지고 있다.⁶⁸⁾

그리고 수록재를 비롯하여 모든 시식의례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식이 수계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수록재와 같은 대형의식에는 수계편이 잘 시설되었지만 일반 시식의식에서는 ‘귀의불 귀의법 귀의승’으로 간략하게 나타난다. 아울러 사홍서원을 발원하는 발사홍서편과 원성취진언의 위치와 공능에 대한 의미 있는 검토가 요청된다.

2. 참여와 이해

현재 수록재를 개설하는 진관사나 삼화사에서는 ‘국행’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국행’을 강조하는 순간 불교의 고유한 수행의례로서의 수록재 성격이 저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왜인가. 국행(國行)이라고 하면 나라에서 행하는 추천과 제사의식에 한정된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은 특정 종교를 국교로 하지도 않고, 국가의 제사를 봉행하는 나라가 아니다. 국가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위해 진혼이나 위령제와 같은 성격의 행사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기껏해야 현충일 또는 국가행사에 묵념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수록재에 ‘국행’이라는 관형어를 달게 되면, 현재적 수행의례가 아닌 과거의 역사 또는 문화재의 재현에 머물게 된다. 과거를 통해서

68) 이성운, 『한국불교의례체계연구』(동국대 박사논문, 2012)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작법귀감』(1826)에는 이와 같은 순서가 지켜지고 있지만 이후 의식에서는 여래 십호가 반야계송 다음에 시설되는 경우가 많다. 앞의 여수 진남제 수록재(『수록재현황조사보고서』, p.42.)에도 이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수록재라고 하고 있지만 일반화된 대령 관육 시식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를 포교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생동감 있는 수행의례의 그것과 감동이 같다고 하기 어렵다. 수륙재의 의미를 현대화하고, 명계와 양계, 다시 말해 산 자와 간 자가 함께 공덕을 받는, 참여하는 의례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수륙재는 제사와 천도를 대행해주는 수동적인 의례에서, 수륙재의 비용을 부담하는 설판재자나 동참재자, 그리고 참여하는 불자, 불교를 믿지 않는 관람자들에게 불교의 자비와 지혜를 나눠줄 수 있게 된다.

고도의 전문 스님들에 의해 봉행되는 수륙재에는, 경전이나 천수법성계 등의 독송같이 쉽게 대중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못하다. 재자의 경우 겨우 향을 올리거나 상단이나 영단에 노자를 올리고 절을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또 수륙재의 공양은 제법의 실상이 공임을 관하며, 마음을 움직여 향과 꽃에서 공양물이 나와 10법계의 성범에게 공양되는 수월도량 공화불사이다. 그래서 백파스님은 『작법귀감』에서 관력이 없는 스님은 종일 동안 염불해도 도로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는 수륙재가 단순히 음식을 베푸는 의식이 아님을 의미한다. 또 수륙재에는 소문(疏文)이나 계송 등이 특수한 소리로 의해 설행되고 춤과 같은 전문적인 작법이 동원된다. 재자의 참여를 제고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도의 훈련된 이들에 의해 설행되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개악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재자와 동참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수륙재가 산 자와 간 자, 그리고 일체의 불보살님과 성현들을 불러 모시는 그런 법석이다. 그러므로 관력(觀力: 관행수행력)이 요청된다. 국내 수륙의문에는 관상법이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중국의 『수륙의궤회본』에는 봉청이나 공양 때 법주가 관상하라고 협주하고 있다. 아래 인용문은 시방의 제보살승과 권속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표백을 하고 나서 가영 이후 고아례(故我禮)를 하고 나서 주법사에게 관상(觀想)을 하라는 지문이다.

주 법사는 시방의 여러 보살승께서 재를 봉행하는 집안의 정성으로 아뢰는 뜻을 알아 각기 자비심을 일으켜 묵묵히 거두어 받아들여 줄 것을 허락하시고 청하는 원대로 채워 주신다고 생각한다.⁶⁹⁾

현재적 관점, 다시 말해 의례를 새롭게 편제하지 않는 한 의례문의 해석과 이해를 돕는 의례의 해설을 개발해야 한다. 수록재를 소통과 융합의 장이라고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법도⁷⁰⁾ 그 하나가 될 수 있다.

수록재에는 상중하 삼위의 일체 성현과 범부가 초청된다. 이를 위해 시간적 개념의 사자단이 등장하고, 일체의 공간에 길을 열기 위해 오로단의 황제가 등장한다. 시간을 열고 공간을 여는 것이다. 이는 현대인의 감각으로 볼 때 과거 현재 미래를 가로막는 시간을 뛰어넘는 것이고 동서와 남북을 가로막는 장벽을 여는 길이다. 여기에는 고도의 상징화된 체계와 사상을 가지고 있다. 오늘의 현대인들은 술한 고정 관념으로 말미암아 시간에 갇혀 있고 의식의 세계에 갇혀 있다. 이를 풀어주는 의례의 하나로 수록재 소청의식을 활용할 수 있다. 재래의 10청 개념을 현재적 관점으로 전환해 법사와 시주를 이운해 오듯이 동참 재자를 소청의식으로 청해 수계를 하고 성범의 자리에 초청하는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은 冥陽과 색·무색의 세계를 믿지 않는다. 또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존재에게는 한없는 굴신을 하면서도 그보다 못한 미물은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한다. 하지만 금강경의 9류 중생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모습이 보이거나 그렇지 않거나를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음식과 법식을 나눠 먹는다. 이것을 위해 시설된 의식이 가지변공 주식현공과 같은

69) 印光 撰, 『水陸儀軌會本』(中華民國 台北: 宏願出版社, 中華民國 94年), p.137.

70) 홍윤식, 「수록재의 내용과 의미」, 『삼화사와 국행수록대재』(삼화사, 2008), pp.13-25.

다라니 의식이다. 유한한 음식을 무한한 이들에게 나눠 먹고 먹게 하는 우주의 잔치, 이것이 바로 수륙재인 것이다.

결국 수륙재가 포교에 잘 활용되려면 수륙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문 의문을 우리말로 풀어야 한다. 그리고 수륙재 가운데 설판재자, 동참재자뿐만 아니라 참여관람자도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 수 있어야 한다. 가령 하위의 일체 범부를 청하는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아니면 자신과 원수 맺은 이를 위해 소원을 적어 무차법회 단에 안치하고, 또 각각의 소원 성취를 위해 본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미래의 수륙재는 소청과 승재(僧齋, 승중에 공양을 올림)의 의미를 되살린 식당작법이나 발우공양과 같은 대중공양의식이 복원되며, 설판재자나 동참재자가 재 의뢰자에서 所講, 能所의 공양과 예참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례 형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 『結手文』에 주로 남아 있는 ‘수인법’을 수련하여 활용하며, 신구의 삼업으로 소청하고 공양하며 봉송하는 모습을 보일 때 범패 범음의 소리 중심에서 진일보할 수 있을 것이다. 관상과 수인의 행법은 전문으로 수련한 이가 진행하고, 일반 아뢰는 문장은 동참대중이 합송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고, 아울러 현행 의례의 모순을 바로 잡는 작업을 과감히 실천해야 한다. 또 국가불교 왕조 시대가 오늘의 현실에 국혼 승혼 법계영가 등을 중심으로 청하는 국행수륙재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공간적 계위에서 세대적 계위로 그 역할이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어: 대동의 향연으로

지금까지 한국불교의 수륙재가 어떻게 설행되고 있으며 한국불교의 수륙재를 포교에 활용하려면 어떠한 점이 검토되어야 하는지에 몇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고려 때 수륙재가 설행되기 시작했다는 기록은 전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륙재가 망자의 추천과 재앙의 소멸, 기신의 제사의례로 널리 설행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이 건국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수륙재의 판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현존하는 수륙재의문은 대개 15세기 후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志磐文』, 『中禮文』, 『結手文』은 대·중·소의 의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축소되는 길을 걸었다고 보이며, 의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 현재 설행되는 수륙재와 비교할 때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미 17,18세기에 들어오면서 전승되는 주요 수륙재문에 의지하여 수륙재를 설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여겨져 ‘범음산보집’과 같은 산보(刪補) 의문에 의지해 수륙재가 설행되었다고 생각된다. 그 결과 의미와 의문의 변화가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II장에서 다룬 시련, 가지변공, 공양의 위치와 법시의 차서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차이는 ‘견기이작(見機而作)’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숙련된 이력을 가진 이들에 의해 견기이작하여 ‘광략(廣略)’으로 설행되던 수륙재를, 일반의 보통의례로 정착돼 대중포교에 활용되려면, 그 의례와 의미에 맞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의례의 차서와 의미 등을 바르게 이해하고 대중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의례의 체계적인 이해와 설명은 동참 재자와 일반 참여자들로 하여금 의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다. 또 수륙재 설행 상황에 맞는 대소(大小)의 의문을 생성할 필요가 있다. ‘견기이작’은 여법하게 ‘광략’할 수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짧은 시간에 행할 수 있는 수륙재 의문, 중간 정도의 시간에 행할 수 있는 의문, 2박 또는 3일에

행할 수 있는 의문을 편찬해 보급하는 일은 의문의 우리말 번역보다 더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수륙재는 자비와 지혜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불교의식의 총아이자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수행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배고픈 이의 구제에서 출발했겠지만 수륙재는 법계의 성인과 범부들에게 공양을 올리거나 베푸는, 보시하는 수행의 장이 되었다. 공양 하면 윗사람에게 베푸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수륙재에서는 위아래 성범의 차이는 인정하나(法界聖凡) 차별하지 않는다.(無遮) 수륙재를 통해 남녀, 빈부와 같은 차이는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진 존재들과도 소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의례의 현대적 정비)가 이룩될 때, 수륙재는 현대 포교의 활기 찬 대동의 향연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佛說救面然餓鬼陀羅尼神咒經』 T21
『佛說救拔焰口餓鬼陀羅尼經』 T21
『佛說救面然餓鬼陀羅尼神咒經』 T21
『蓮潭大師林下錄』, 『韓國佛教全書』 제10책, 동국대학교출판부, 1989
『增修禪教施食儀文』,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第一輯, 三聖庵
『志磐文』,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第一輯, 三聖庵
『中禮文』,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第二輯, 三聖庵
『結手文』,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第二輯, 三聖庵
『五種梵音集』,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第二輯, 三聖庵
『태조실록』
『세종실록』
『중종실록』
『석문의법』 하권
고상현, 「고려시대 수륙재 연구」, 『선문화』 제10집, 2011
김재수(성마), 「수륙재 구성에서의 범패작법」, 『삼화사와 국행수륙대재』, 삼화사, 2008.
김용환·윤소희, 『신라의 소리 영남범패』, 정우서적, 2010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문화부, 『수륙재실태조사보고서』,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2010
文化財研究所 藝能民俗研究室, 『佛敎儀式』, 계문사, 1989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 『불교의례와 음식』,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 2007
심상현, 『영산재』,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심상현, 『불교의식각론』Ⅱ, 한국불교출판부, 2000
미등, 『국행수륙대재-삼화사 수륙재를 중심으로』, 조계종출판사, 2010
법안·우천, 『삼밀시식행법해설』, 정우서적, 2011
서윤길, 『한국밀교사상사』, 운주사, 2006
심효섭, 「한국수륙재의 역사적 전개와 전승 현황」, 『삼화사와 국행수륙대재』, 삼화사·동해시·(사)국제아시아민속학회, 2008

- 윤소희, 「한·중수륙법회연구」, 『韓國音樂研究』 제43집, 2008
- 이기운, 「조선 후기 수록재의 실행과 『천지명양수록재의범음산보집』의 편찬의도」, 『진관사 국행수록대재의 조명』,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2010
- 이성운, 「표준법요집과 의례구조」, 『불교와사회』 5집,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포교연구실, 2009
- 이성운, 「한국불교 공양의식 일고-변공의례의 형성과 수용」, 『한국불교학』 제57집, 한국불교학회, 2010
- 이성운, 「한국불교 ‘시식의문’의 성립과 특성」, 『불교학보』 57집, 2010
- 이성운, 『한국불교의례체계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이상렬, 「조선 전기 국행수록재의 실행 논란과 사회사회문화적 역할」, 『진관사 국행수록대재의 조명』,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2010.
- 印光撰, 『水陸儀軌會本』, 中華民國 台北: 宏願出版社, 中華民國 94年
- 임종욱 역주, 『천지명양수록재의찬요』, 동해시, 2007
- 장경희, 「조선시대 국행수록재의 儀式法具 연구-왕실 의례용 공예품과의 비교를 통하여」, 『진관사 수록대재의 조명』, 진관사, 2010
- 정태혁, 『한국불교용통사』, 정우서적, 2002
- 中國佛教協會編, 「中國佛教儀軌制度」, 『中國佛教』 2, 上海: 知識出版社, 1982 (1989)
- 한상길, 「조선전기 수록재 실행의 사회적 의미」, 『韓國禪學』 第23號, 한국선학회, 2009
- 홍윤식, 「수록재의 내용과 의미」, 『삼화사와 국행수록대재』, 삼화사, 2008

Abstract

Several Problems of Current Suryukjae

Lee Sung-woon

(Lecture of Department of Buddhism, Dongguk University)

The study was prepared on the assumption that desirable Suryukjae model can be completed by reviewing current Suryukjae(水陸齋), ritual sentences and differences and reflecting study result to current Suryukjae.

The study asserts several conclusions as below by focusing on the analysis and review of the case of Suryukjae performed in Korean Buddhism, name of Suryukjae in previous ritual sentences, its structure & meaning and understanding of public people.

First, the study tried re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Suryukjae. Originally, Suryukjae was the ceremony to lead the person who dies in water and land to the heaven so it has been performed in waterside. However, the study asserted that it was not true.

Second, the study discussed the target of 'Siryun-ritual ceremony' that is performed in the introduction of Suryukjae. Until now on, many people have understood that the target of Siryun-ritual ceremony was Buddha-Bodhisattva or Seonghyeon-jung(聖賢衆, a group of the wise gods) but the study asserted that the target was Youngka(靈駕, the pertinent soul). In addition, the study researched the difference of Byeongong(changing offerings) that quality and quantity of Gongyang(offering) changes in each step.

Third, Suryukjae that adopts 3-podiums(壇) such as top, middle and

bottom for Gongyang(offering) and Sisik(banquet) serves Gongyang after the request of top, middle and bottom podium or serves Gongyang during the request of top, middle and bottom podium depending on situation. The study asserted that it is necessary to review desirable Order(次序)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tructure of Suryukjae.

Forth, 'national' Suryukjae can't exist in the current political system. Therefore, Suryukjae should be performed as a Buddhist ceremony suitable for the reality, apart from national ceremony. For the purpose, the meaning of Suryukjae should be newly interpreted by understanding it correctly. If it is translated and performed in Korean language, it can contribute to the modern propagation.

Key Words

Suryukjae(水陸齋), Siryun-ritual ceremony(侍輦儀式), Sisik(施食, banquet), Gongyang(供養, offering), Byeongong(變供, changing offerings)



논문투고일 : '12. 11. 15 심사완료일 : '12. 12. 11 게재확정일 : '12. 12. 17